스스로 진리에 가닿는 정진 40년

산문밖의 수필

화가 이만익 씨

"사람은 누구나 그가 바친 시간을 그리워 한다."

살아 온 시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그리움보다 훨씬 간절하다. '그립다'는 관념마저 뛰어 넘은 그리움. 그 원초적 그리움으로 자신의 그림세월 40년을 결산하는 전시회를 갖고 있는 중견화가 이만익씨(57).

'말하는 그림, 소리없는 시'란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한가람미술관에서 「이만익 그림 40년 회고전」을 갖고 있는 그는 지나 온 세월에 대한 그리움을 마치 자신의 살을 헤쳐 보이듯 드러내고 있다.

남은 여백 찾는 회고전

"시간은 많은 것을 남겨주기도 하지만 소중한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씨는 이 전시회에 자신의 부끄러운 작품들, 즉 고교시절의 그림이나 대학 시절의 습작품까지 과감하게 내놓았다. 지나온 시간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가져갔으며 또 무엇을 남겨주었는가를 가늠해 보자는 속셈이다. 일기장을 펼쳐 보이는듯한 이 전시를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까지 승화시키려는 이씨에게서는 '익은 사람'의 그윽한 향취마저 느껴진다.

강산이 네번 변하는 동안 이씨도 부단히 변화해 왔다. 스스로 정체되어 있을 수 없는 혈기를 다스려 온 그 세월 속에서 더러는 날카롭고 더러는 부드럽고 또 더러는 절망스럽기도 한 표정으로 화판에 세상을 담아왔던 것이다. 수로부인의 치맛자락에 신라의 하늘을 매달기도 하고 어촌 마을의 비린내를 화판 가득 담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 답은 의외로 그림이 아닌 글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회고전에 때맞춰 내놓은 수필집의 제목 '그립다 보고 싶다 그리고 싶다'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원형질 그리고 그 원형질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욕구와 마침내 나의 존재를 나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뜻에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림은 그리움에서 시작되어 감성을 동원한 표현으로 드러나 자족(自足)의 예술품으로 완성되는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삶인 것이다. 그는 굳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이같은 생각을 불교와 대비시켜 설명하자면 "스스로 정진해 진리에 가 닿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백의 화판은 그에게 있어 드넓은 법당이다. 불보살도 없고 냉수 떠 바칠 그릇하나 없는 법당. 오로지 텅 비어있는 그 법당에 가장 먼저 얹어놓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신이다. 자신의 모습을 얹어놓고 "너는 지금 무엇을 그리려 하느냐"고 묻는 것이 작업의 첫 순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무엇을 그려라하는 답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물음을 던져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언제나 완성된 그림 그 자체일 뿐이니까요."

다 그려진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도 절대적인 낭패감도 갖지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익은 모습'이다. '애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구나'하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것이니까.

'무엇을 그릴 것인가' 답은 완성된 그림…모두 내 자화상

◇관음도

완전에 대한 도전 그 자체는 또다른 작품을 위한 여백일 뿐이다. 40년 회고전도 이씨에게는 남은 삶의 여백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시회 팜플렛에서 "나도 이제 한걸음 멈추어 서서 지나온 나를 돌아다보고 맞이할 시간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초보자 시절부터 자화상을 그렸다. 세월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화상을 부단히 그리는 것은 '너는 지금 무엇을 그리려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순간의 자기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시말하면 '너는 지금 너를 그려봐라'라는 욕구가 마침내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답을 화판에 올려놓는 것이다.

존재에 대한 확인작업

60년 68년 74년의 자화상은 모두가 그당시 자신의 모습이다. 자화상이니까. 그러나 그 자화상은 외형적인 이만익만이 아님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다. 인간으로서, 화가로서 익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나의 자화상은 나의 그리움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자화상은 내 모습이 아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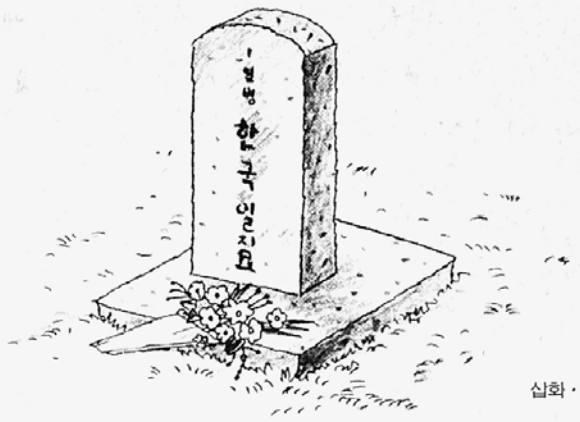
사실 이씨는 그의 모든 작품을 자화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결론은 자신의 것이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린다는 욕심을 저버린 곳에서 「비천도」를 그릴때면 자신이 구름위를 날아가고 「관음도」를 그릴때면 이미 자신도 관음의 몸이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려나가는 그림과 손끝의 붓 그리고 화판 앞에 앉은 자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만익씨는 "아이구,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못갔어요. 어림없지요"라며 화실 한 켠에 걸린 「비천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는 저렇게 끝모르게 부드러운 비상의 몸짓을 해야하는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멋진 그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며 새로 갈 길을 찾고있는 이만익씨는 이번 40년 회고전을 마치고 나면 또 어떤 자화상을 그릴까.

임연태 기자



십화 · 이기선

호국영령 천도위해 합장을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㉘ 천도

불국토서 왕생극락토록 염원

6월 하늘아래 보리밭 넘어로 뻐꾸기 울음소리가 익어간다. 민족의 애잔함이 서려있는 울음으로 익어간다. 조국산하에서 산화된 호국 영령들은 저 두견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직 통일은 영원한데. 영령은 긴긴 세월동안 역사의 주름살 앞에 비목으로 서 있다.

역사여, 조국이여,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아니라 국군은 역사를 가로질러 가는 통일의 함성이라고 노래하여 다오.

현충일. 향사르고 꽃꽂아 놓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구절을 가만히 되새김질 하여본다. 곧 오겠지 하면서도 50년의 공간에 비원의 이끼가 파랗게 자라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 모두 옷깃 여미고 선열과 호국의 영령에 합장하고 절하자. 그리고 불국토에서 열반미를 맛보게 하여 달라고 염원하자. 열반의 맛은 달고 쓰고 맵고 짜지 않는 하나의 맛이리라. 일미(一味)의 원음을 노래하면서 안양하리라 생각한다.

애도심 지극하면 업녹아

지장경 칭불명호품(稱佛名號品)에 보면 천도(薦度)에 관한 내용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업보에 의하여 나락에 떨어지는 망령이 있는가 하면 극락에 나려는 선령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죽어간 영령에 대하여 염불자가 열심히 염불천도하면 망자가 연화대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도 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그 이름이 무변신여래(無邊身如來)시라. 만약 어느 남녀가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면 곧 40겁동안의 생사계의 무거운 죄를 초월하옵거늘 어찌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로 모시고 공양 찬탄함이오리까. 그 사람이 얻는 복은 한량없고 무변하리라. 또 과거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보승여래(寶勝如來)시라. 만약 어느 남녀가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귀의하는 마음을 내면 이 사람은 위없는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으리라."

지장경에 있는 말씀은 긴요한 것이다. 살아 있었을 때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애도자의 염원에 의하여 왕생극락한다는 것이다.

무주고혼이 이 산 저 산, 이 하늘 저 하늘가에 홀로 외롭게 떠돌아 다닌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는 이 무주고혼을 달래는 씻김굿을 하여야 한다. 영혼에 외로운 때가 얼룩져 있으면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한다. 오복을 점지할 수 있도록 환한 얼굴로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 나라와 겨레를 위한 영령이 원한에 젖어 있다면 우리들의 정성이 미약한 것이다. 삼백예순날 쉴새없이 씻김의 향화를 올리고 일귀극락하는 염불을 하여야 한다.

흔히 망자에 드리는 기도가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고 회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저 한번 해 보는 의식이지 꼭 망자가 왕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하면 천도가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겨레위한 희생에 감사를

몸은 죽어가나 식령(識靈)은 죽지않는 것이다. 그 식령의 귀에다 염불을 극진하게 하면 전음이 되는 것이다. 이 허공계에는 식령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허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식령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허공에는 세상의 소리가 충만해 있는 것이다. 음파를 잡는 기계가 있으면 온갖 소리를 다 듣는 것처럼. 이 허공은 소리의 장고(藏庫)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장경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여래의 명호를 염송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한다고 하지 아니 하였는가.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은 의심하고 믿지 않아야 할 것은 발버둥치면서 소유하려고 하니 이것이 병고가 아닌가.

6월의 하늘을 푸르게 하자. 한국의 산하에 묻혀있는 식령을 위하여 또한 세계도처에 잠자고 있는 망자를 위하여 우리는 보살의 기도로서 염불하여 모든 영령이 천도되게 하여야 한다. 무주고혼이 원한을 품지 않게 하여야 하고 유주식령이 안락하게 하여야만 지금 살고있는 후손도 안영할 것이다.

6월에 우리 모두 천도의 칭불명호를 하는 한국인이 되어 보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다 방
보증금 800(월세 45만원) 권리금(시설비) 3,800만원
새다방 하실 분
보증금 1,000만원에 85만원
(032)348-1716 341-1507

사찰터 임야 9천평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 7천평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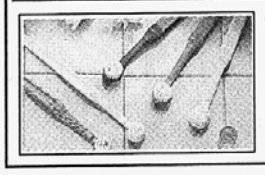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역학 · 성명학에 관심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만을 모십니다
최여래심 합장
연락처 987-2721
주소:강북구 번2동 주공APT 408동 803호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 · 변비 · 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태화사):법당 수미단 옥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덩부전 문짝
• 청남(법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상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옥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선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공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택 02-248-4609
공장 0346-571-9538
호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한만청빌딩 2층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